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카투사 '최우수 발표자' 수상
백선엽 예비역대장 초청강연

3면 군관련 소식

군상식
한마디

4,5면 부대 탐방

17항공여단 164항공지원단



6면 자유 공간

야외 정훈소감문

7면 영어교육연재

Winglish.com

8면 안녕하세요

슈가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7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 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전쟁 53주년 현화행사

지난 6월 25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에서는 한국전쟁 시 전사한 이들을 위한 현화행사가 있었다.

한국전쟁 53주년을 맞아 미 8군 군중참모부 주최로 거행된 이번 현화행사에는 한국군과 미군측에서 각각 33명의 군목이 참가,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한국군과 미군들의 넋을 기렸다. 이 밖에도 수 명의 카투사들을 포함해 의장대, 미8군 군악대가 행사에 참여하여 행사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날 행사를 총 기획한 미 8군 군중참모부 주임원사 Stephen Stott 원사는 "카투사를 비롯한 군중참모부의 병사들이 오늘 행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기울였는데 무사히 마쳐서 참 다행"이라며 "이 행사를 통해 다시 한번 50년 전 비극적인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한국군과 미군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를 드린다"고 군목으로서 이번 행사를 지휘한 소감을 말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이날 행사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국가로 시작되었다.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행사 참가자들은 모두 경례를 취해 전쟁의 희생자들을 기리며 예를 표했다. 이어서 한국군과 미군의 각 육군, 공군, 해군 그리고 주한미군 군중참모부와 국방부에서 각 한 명씩 군목 대표가 나와 화환을 전달하였다.

오늘 한국 육군 화환을 직접 현화한 한국지역사무실 종교휴양소 소속의 김동진 병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이 현화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사 참여 소감을 밝혔다.

Stott 주임원사는 "한국전쟁 53주년을 맞아 시작된 이 현화행사는 올해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행사가 될 것"이라며 "앞



카투사 신문 장승모

양국의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왼쪽부터) 미 8군 군중참모부 김종빈 상병, 한국지역사무실 종교휴양소 김현우 상병, 해군본부 군중감실 엄태호 군목을 비롯한 모든 행사 참가자들이 경례를 하는 모습

으로는 이러한 공식적인 행사가 없겠지만 비공식적으로 매년 이와 비슷한 소규모의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오늘 행사에 한국군 군목 자격으로 참가한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군중참모인 민상기 군목은 "한국전쟁 전사자 추모행사를 미군과 함께 해 그들과의 유대감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고, 한미동맹의 실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며 이날 행사에 참가한 소감을 말했다.

상병 장승모

한미 합동 실탄사격훈련 실시



8th MP Bde Spc. Olubunmi Babalola

훈련 참가자들이 실탄사격훈련 중 적을 향해 돌격하고 있다.

이영제 소장이 이끄는 한국군 35보병사단과 미 188 헌병중대 장병들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전북 남원 보절사격장에서 소대급 합동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미 8 헌병여단과 한국군

들과 함께한 이번 훈련은 188 헌병중대 헌병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Champagne 대령은 "한국군과 함께 한 이런 훈련기회에 매우 감사하고 있고, 명령을 받으면 우리는 함께 싸워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 훈련으로 서로의 능력을 확인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Brian Carlson 대위는 "이번 훈련 동안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가운데 한미 우호 관계도 증진시킬 수 있었고, 양측 모두 실전에서 대응 방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합동 훈련은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를 과시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훈련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위치가 파악된 적에게 헌병 부대원들이 정밀공격을 가하는 모의 전투훈련이었다.

한국군 보병 소총수들은 일개 공격조로 통합되었고 나머지는 사격 진지별로 지원 임무를 맡았다. 지휘자들이 목표물에 대한 정찰을 하는 동안 나머지 병사들은 목표 재집결 지점을 정하는 것으로 훈련을 시작했다. 정찰이 끝나자 분대장, 조장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은 소대장의 지시에 따라 각자 위치로 이동하였다.

2 면에서 계속...

카투사 '최우수 발표자' 수상

지난 6월 27일 제3지역 본부중대 선임병장 서정현 병장은 3지역대 기회군 등 수업 졸업식에서 우수 발표자로서 상을 수상하였다.

우리나라의 명절 설날에 관하여 발표한 서정현 병장은 수업을 함께 수강한 같은 반 학생들에 의해 우수 발표자로 뽑히게 되었다.

3지역대 기회군등 고문이자 기회군 등 수업 교사로 맡고 있는 Richard Neidrauer 중사는 학생들의 발표를 채점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기회군등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한 가지 주제가 주어지고, 그것을 연구하여 파워포인트를 사용해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발표해야 합니다. 채점자들은 이 발표에서 주제와의 적합성과 얼마나 흥미를 이끌어내는가 등을 보고 마지막으로 군대 형식에서 이탈하지는 않았는지를 봅니다."

Neidrauer 중사는 "이제까지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은 서정현 병장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정현 병장이 보여준 모든 슬라이드들은 그가 주장하는 사실을 더욱 명쾌히 했고, 그가 한 발표는 군대 형식에 적합했으며 중심 내용들을 적절히 강조하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서정현 병장은 한국의 고유 명절들에 대하여 미군들에게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설날이라는

주제는 이를 실천하는데 적절했다.

"설날은 한국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명절이기 때문에 미군들이 한국의 설날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려 노력하였다"는 서정현 병장은 "단지 발표문을 읽지 않고 외워서 발표함으로써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미군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였다.

서정현 병장이 비록 채점위원들로부터 만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지만, 서정현 병장에게 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한 이들은 채점위원들이 아닌 함께 수업을 수강한 23명의 같은 반 학생들이었다.

"서정현 병장을 우수 발표자로 선정한 이는 채점위원들이 아니라 같은 반 학생들이었다"고 말한 Neidrauer 중사는 "그의 반 학생들은 그의 발표를 보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며 서정현 병장이 최우수 발표자라는 데에 아무 이의가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Neidrauer 중사는 서정현 병장이 필기시험에서도 만점을 받는 등 발표 외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Neidrauer 중사에 의하면 원래는 하사에서 중위까지만 이 수업에 참가하게 되어있지만,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카투사들도 역시 기회군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 8군에서는 카투사 상병과 병장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전했다.



"카투사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선임병장을 말씀으로써, 부대 내에서 카투사의 기회군등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서정현 병장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 존재하지만 기회군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잘못이 있는 것지를 잘 판단해야한다"며 카투사의 기회군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서정현 병장은 마지막으로 "졸업식 행사에서 나의 수상 모습을 많은 부대원들이 보았고 그런 만큼 이들의 기회군등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ighth Army PAO
Staff Sgt. Russell C. Bassett

카투사지는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송 공인 신문임. 주간 미군 인쇄장에서 1회 3,500부씩 월 2회 발행됨.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 육군성의 그것은 아님. 카투사지는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됨.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2372건물 107호이며 전화번호는 723-6460/7196/4683/3537(fax)임. 모든 글은 용산구 채신청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낼 것임. 전자우편 주소는 kimddong@usfk.korea.army.mil임.

- 미8군 사령관
- 중장 찰스 씨 캠펠
- 한국군지원단장
- 대령 김덕곤
- 미8군 공보실장
- 중령 스티븐 에이 보일란
-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 대위(진) 이세희
- 편집장
- 병장 김대동
- 기자
- 병장 이만석
- 상병 강병삼
- 상병 장승모



- Eighth U.S. Army Commander
- LTG Charles C. Campbell
-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 LTC Steven A. Boylan
- Command Information OIC
- MAJ Lee M. Packnett
- Editor
- SGT Kim, Dae Dong
- Staff Writers
- SGT Lee, Man Suk
- CPL Kang, Byung Sam
- CPL Jang, Seung Mo
- Special Assistant
- Mr. Oh, S. C.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or Eighth U.S.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3,5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Room 107 Bldg. 2372,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7196/4683/3537(fax).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parkjy@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합동 실사격 훈련

1면에 이어서...

공격은 한국군 35 보병사단 박격포 발사와 미 8 공군 보안 비행대대 박격포팀의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그 다음 각 분대는 적 위치를 향해 기동을 시작함으로써 공격에 가담했다.

미 188 헌병중대 2소대 소속 강길원 상병은 이번 훈련이 힘들기는 하였지만 매우 유익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을 통해 인내와 끈기를 배웠습니다. 훈련은 도전적이었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전장에서 수색 방법과 포로를 다루는 법, 그리고 정확한 라디오 수신법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한국군 장병들과 군사훈련을 함께 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무척 좋았습니다. 특히 한국군과 미군이 아군이면서도 서로에게 생소했던 무기를 처음으로 작동해 볼 수 있었던 점이 신났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모든 장병들은 훈련이 끝나고 본대로 돌아가기 전에 인원 파악 및 장비 점검을 한 뒤 훈련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파른 보철 언덕과 험준없이 강행된 이번 실사격 훈련은 참가한 모든 장병들의 전쟁 수행 능력과 도전 정신을 더욱 증대시켰다.

8th MP Brigade PAO
Spc. Olubunmi Babalola

백선엽 예비역 대장 안보 초빙 강연



미8군 공보실 일병 윤종필

지난 7월 2일 용산 발보니 극장에서 500여명의 카투사들을 대상으로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6.25 전쟁의 교훈과 우리군의 자세'라는 주제에 관하여 안보 초빙 강연을 하였다. 정훈 교육을 대신하여 행해진 이번 강연은 한국군 지원단 단장 김덕곤 대령이 백선엽 장군을 표창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공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집합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 723-6460

E-mail: kimddong@usfk.korea.army.mil

■ 군상식

KF-16 Fighting Falcon

약 600 여대의 전술 항공기로 중무장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Peace Bridge" 대외 군사 무기 판매 프로그램에 의해 1981년에 00대의 F-16C/D 구매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기는 F-4D/E 팬텀, F-5E Tiger II 였으나 Fighting Falcon의 F-16C/D를 구입하기로 함에 따라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은 크게 증강되게 되었다.

1989년 부터 전자장비와 Pratt&Whitney의 F100-PW-229 엔진의 성능을 개선하여 KF-16을 만들게 되었다.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을 크게 증강시킨 KF-16 Fighting Falcon 모델

있던 것이다.

처음 00대는 록히드사가 제조 공급하기로 하고 00대는 부품상태로 대한민국에 수출하여 대한민국에서 조립하며 나머지 00대는 삼성항공에서 생산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은 대한민국을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에 이어 세계 5위의 F-16 생산국으로 만들게 되었다.

부계약회사는 대우와 대한항공이었으며 계약에는 한국 기술자들의 기술 연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KF-16의 최초 인도는 1994년 12월 2일에 이루어졌으며 1997년 6월 30일 첫 국내 생산한 KF-16의 인도식이 삼성항공 XX공장에서 이루어졌다.

이 KF-16은 약 349,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항공기이다.

또한 LANTIRN 야간 운항 및 표적관리 시스템과 AIM-120 Amraam, AGM-88 HARM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다.

한국 T/A-50 GOLDEN EAGLE

1992년부터 신형의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의 개발가능성을 연구 검토하기 시작하여 1995년 중

반 신형 고등훈련기/경공격기의 개발에 대한 KTX-2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T-50/A-50 골든이글(Golden Eagle, 금독수리)은 F-16 제작기술을 응용한 차세대 고등훈련기 및 경공격기로 한국정부와 한국 항공우주산업(KAI : Korea Aerospace Industry, 삼성항공-현대우주항공-대우중공업 각사의 항공사업부문 합작법인)과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에서 공동개발했다.

2000년 2월 한국 항공우주산업(주)은 KTX-2 항공기의 제식명칭을 T-50/A-50 골든이글(금독수리)로 발표했으며 고등훈련기로 사용될 T-50과 경공격기로 사용될 A-50 두 가지 형태로 개발했다.

◆ 특성

기체형태는 F-16을 기본으로 하여 공기 흡입구와 리딩에지 윙루트 부분에 F/A-18C/D형의 것을 적용한 듯한 모습을 하고 있고 시계(視界)가 우수한 조종석에는 HUD(Head Up Display), HOTAS, 5인치 칼라표시현기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장비는 디지털 기기로 구성되어 있



제공사진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제작한 T/A-50 골든이글

다.

조종계통은 조종특성 및 기동성이 우수한 디지털 Fly-by-Wire 로 되어있으며, 주날개는 항공기 이착륙 및 기동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날개 곡면을 변경시키는 가변 캠버(Camber)로 설계됐다.

엔진은 고출력을 내는 GE사의 GE F404 GE-102엔진을 장착하여 기동력 향상을 꾀했으며 A-50 기에는 7개의 무장 장착대가 있어 공대공/공대지 무장을 다양하게 장착할 수 있고, 내장형의 20mm 기관포 1문이 고정 장착되어 있다.

또한 IFF/SIF 적아식별장치와 GPS/INS, TACAN, VOR/ILS 등의 항법장비가 장착되어 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자료출처: www.militaryreview.com

카투사들의 한마디

용산에서 K-16으로 이사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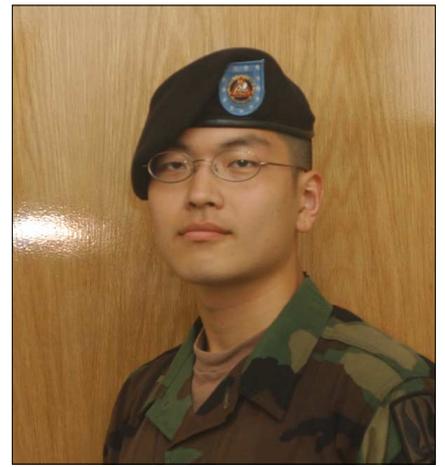
164항공관제단 본부중대 병장 이현민



164항공관제단 D중대 상병 이성환



164항공관제단 D중대 일병 박정연



164항공관제단 본부중대 일병 이승준

K-16은 외경 캠프의 특성상 예전에 있었던 용산과는 달리 매우 한산합니다. 하지만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이곳에서 저희 부대원들은 하루하루를 충실하고 활기차게 보내려고 늘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선임병으로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복무자세를 잘 지켜나가, 저희 164항공관제단의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K-16으로의 부대 이동 소식을 접했을 때, 용산에 비해 많이 부족한 부대 내 시설들에 실망했지만 탁 트인 활주로와 전경, 그리고 용산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아침 PT 때의 맑은 공기를 맡고 난 후 K-16 만큼 부대 생활에 좋은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K-16으로 옮기고 난 후에는 활주로에 정렬되어 있는 헬리콥터들을 볼 때마다 부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K-16은 그다지 큰 규모의 기지는 아니지만 17항공여단이 들어와 있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 종류의 비행기와 헬리콥터가 이륙,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지가 크지 않아 사무실과 막사, 식당, 체육관과의 이동거리를 짧게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한 D중대는 특히 미군들과 카투사들 간의 관계가 돈독하여 서로 돕고 의지하는 관계입니다.

항공관제단의 특성상 K-16은 길게 뻗은 활주로를 끼고 건물들이 보기 좋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K-16의 남쪽에는 전용 축구장, Gym, 실외 수영장 등이 갖춰져 있어서 운동을 좋아하는 부대원들에게 좋은 여건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부대의 막사와 사무실은 새로 지은 건물이라 무척 깨끗합니다. 부대의 규모는 아담하고 분위기가 정답고 친근해서 모르는 사람끼리도 인사를 나눕니다.



카투사 신문 강병삼

대해 가디언 소대 선임 병장 박세형 병장은 "전혀 새로운 분야에 투입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다"며 "여러가지 면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방지이기 때문에, 신병들에게도 사고 방지 요령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항상 긴장하라고, 한번에 여러 대와 연락 할 때도 있는 데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17 항공여단에서는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대모초등학교에서 미군과 카투사가 짝을 이뤄 토요일마다 저학년 1시간, 고학년 1시간씩 총 2시간의 영어교육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164 항공관제단에서도 카투사 5명 정도가 매주 참여하고 있는데, 요즘 학생들의 영어실력에 맞춰 수준 높

164 항공관제단은 1963년 비행중대로 창설되었으며 1971년 민간인과 카투사가 2개국어 관제를 위해 보충되었다. 1973년에는 1통신여단으로 편입되었으나 1986년 다시 17항공여단 소속 4-58대대로 재편성되었고 1995년에 현재의 164항공관제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164 항공관제단

164th Air Traffic Service Group

164 항공관제단은 본부중대, B중대, D중대로 이루어져 있다. 본부중대와 D중대 일부가 작년 말에 용산의 캠프 코이너에서 성남의 K-16으로 이전했으며, D중대 중 가디언 소대는 용산에 남아 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도 D중대 일부가 있다.) 또 B중대는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본부중대는 164항공관제단 전체에 대한 일반적 지원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기지방어 등의 임무 또한 지닌다.

의정부에 있는 B중대는 본부소대, 1, 2소대로 구성되어 있다. 본부소대는 여러가지 지원업무를 맡고 있으며 1소대(In route 소대), 2소대(터미널 소대)는 헬기 이동 경로와 이착륙을 관제하고 있다. 이들은 관제장비 사용을 할당 정도에 걸쳐 시험보고 통과하면 관제업무를 맡게 된다. 주로 2사단 항공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의정부에 파견되어 있는데, 많은 부분 2사단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은 훈련이 잦은데, 1년에 14-15회 가량 행하고 있다.

D중대의 경우 본부소대의 지원 아래 1,2소대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강 이북 지역을 관리하고 3, 4소대가 실제 작전지를 관리하며, 용산의 가디언 소대는 관제업무를 맡고 있다.

카투사, 미 육군, 미 공군, 민간인들로 구성된 가디언 소대는 용산에서 8시간씩 3교대로 하루 24시간, 365일 항공관제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한반도 위를 날아다니는 모든 미 육군 항공기를 관제하고, 한국 육군 항공기에 대한 정보도 다루고 있다. 항공기가 잘 운행하고 있는지, 필요한 것이 없는지 체크하고 특이사항, 통제구역진입, 비상사태, 인접항로를 지나는 항공기가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한국군측과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서로 교신해야 하기 때문에 카투사가 꼭 필요하다. (직접 관제하는 사진은 보안상 내보낼 수가 없다고 한다.)

처음에 일을 시작하려면 18개 가량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생소한 분야지만 미군과 똑같은 시험을 치른다. 이를 다 통과하고 감독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처리를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된다. 그러기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니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시험은 관제용어 등 관제에 대한 기본상식, 비상사태 등 여러가지 일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평가한다. 소대의 관제업무에

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4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참가하고 있다"는 164 항공관제단 본부중대 선임병장 이현민 병장은 "선임병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봉사활동을 계속 하다보니 학생들과 정이 들어 계속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부대원들이 봉사활동에 한 번 참여하고 오면 보람을 느끼고 그 후로는 서로 가고 싶어 해서 지원자 전원이 갈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164항공관제단 카투사들의 평균 PT점수는 특히 본부중대의 경우 260을 상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회하는 등 높은 점수인데 이현민 병장은 "대대에 알아서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며 후임병들의 방에 갈 때마다 혼자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마다 모여 농구를 한다.

본부중대 통신과 이상현 일병은 최근 있었던 부대의 이사에 대해 "전에는 막사 건물에 여러 개여서 중대끼리만 지냈는데, 이사 후 막사가 통합되고 서로 자주 볼 수 있어 더욱 친근감이 생긴다"고 말했고, 군생활에 대해서는 "좀더 맡은 일에 대해 잘 알고 싶고, 일을 주도적으로, 확실히 할 수 있게 열심히 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했다.

D중대 화생방실에서 근무하는 박정연 일병은 카투사로서 복무한 지난 8개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 보직이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못한 분야라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임병들이 많이 도와주고 화생방 교육도 2주간 다녀와서 이제는 맡은 일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남은 시간 헛되지 않게 쓰겠으며, 부대에서 꼭 필요한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는 또 봉사활동에 대해 "학생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미군과 좀더 친해질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전입 후 8주가 지난 본부중대 연락장교실 정순욱 이병은 "한국군과 미군이 서로 비행 상에서 항로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상호 연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자신의 보직이 "일반적인 카투사가 하는, 미군이 대신할 수 일이 아니라 카투사만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들어왔을 때 선임병들이 신경 많이 써 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많이 배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164항공관제단 본부중대 임시 주임상사를 맡은 John Hayes 상사는 "164항공관제단은 부산부터 비무장지대까지 한반도 전역을 담당하고, 한국군측과도 면밀한 협조를 통해 관제업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카투사가 필수적"이라면서 "문화적으로 한국을 이해시키는 데에, 또 운전, 인사 업무, 보급 업무 등 모든 색션에서도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투사들은 약 2년동안 자대에서 근무하지만 미군들은 1년 정도만 근무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대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지휘관이 후임을 받기 전에 진출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카투사 NCO들이 많은 것을 알려줍

니다." 그는 군생활에 있어 무엇보다 "군인이 되고, 군인다운 것을 알고, 군인답게 행동하는 것(Be, Know and Do)"을 중요시하라고 당부하였다.

B중대 선임병장 오주형 병장은 "미군들과 이런저런 갈등도 겪지만 한미친선과 국토방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미군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자기 보직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도록 PT와 군관련상식 공부에 대해 힘쓰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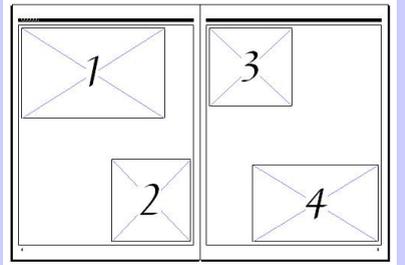
이현민 병장은 군생활동안 느낀, 카투사들에게 바라는 점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카투사들이 군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이 개인적인 것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대 전반적인 생활에 신경쓰고, 자신이 부대를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부대의 일에 좀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내 일', '내 생활'만 생각하지 말고 폭넓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상병 이상인데 NCO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NCO대접을 받을지를 일단 생각해 본 후에 구조적 문제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164항공지원대 지원대장 허형수 상사(진)은 164항공관제단의 카투사들에 대해 "1년 반 가량 같이 근무했는데 유능하고, 믿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임무수행에 있어 흠잡을 데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지 알고 있다는 점이 카투사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았다. 또 카투사들이 "내무생활이 없고, 2인1실 등에서 생활하다 보니 개인생활을 자주 하고, 서로 얼굴 맞대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잘못하면 개인주의로 흐를 가능성"에 대해서 "모여서 운동경기하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고, 정훈교육시간동안 선, 후임병들에 대해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 부대원들이 그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고 평소 얼마나 부대원들간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 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방법을 제시하였다.

"카투사들을 엘리트라고 하는데, 엘리트가 갖춰야 할 '성품'과 '능력' 중 성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지만 능력은 비교적 단시간 내에 갖출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능력보다는 성품입니다. 인간이 완벽할 순 없지만, 성품과 능력을 고루 갖춘 엘리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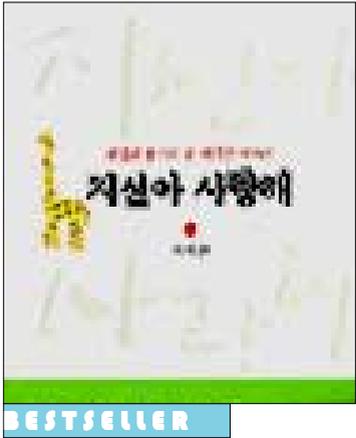
상병 강병삼



1. 본부중대 하광호 일병(왼쪽), 최나무 상병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험비를 PMCS 하고 있다.
2. 본부중대 이승준 이병과 John McCain 상병이 차량을 정비하고 있다.
3. D중대 김봉연 상병이 창고에서 소형 발전기를 나르고 있다.
4. 본부중대 김현성 상병과 17항공여단 1/52대대 A중대 Michael Lamb 병장이 토요일 오전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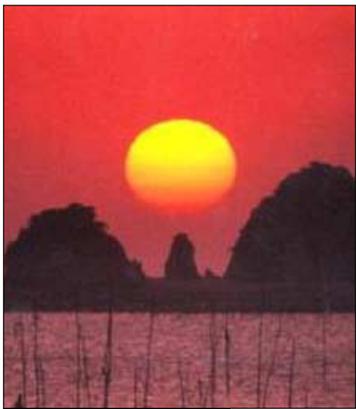
카투사 신문 강병삼



지선아, 사랑해

이지선 / 이레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로 전신 55% 3도 화상을 입어, 의사들마저 치료를 포기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7개월간의 입원과 11차례의 수술,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치료를 통해 예전의 곱던 얼굴 대신 온몸에 화상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는 지선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 오히려 사고 이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저자 이지선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WEBSITE

열차사랑

www.ilovetrain.co.kr

아마도 기차로 가는 여행만큼 낭만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도란도란 나누는 대화, 삶은 계란, 오징어를 파는 손길, 인적 드문 간이역 등 생각만 해도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지 않은지.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좋은 관광지를 알고 싶다면, 혹은 소개하고 싶다면 이 사이트가 적격일 것이다.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사이트이다.

■ 카 투 사 기 고 문

야외 정훈 소감문

이현규 일병의 기고문 '이현규의 축구 이야기'는 이번 호에 실립니다. 그간 보내주신 기고문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4일 캠프 험프리스에서 근무하는 3정보대대와 18의무사령부 지원대 소속의 63명의 카투사들은 야외 정훈 교육의 일환으로 부대 근처에 있는 고성산을 등반하였다. 그리고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안성 3.1 운동 기념관을 관람하였다. 이번 야외 정훈을 통해 카투사들은 힘든 등반을 하면서 지난 군생활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군생활을 어떻게 해 나아갈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3.1 운동 기념관 관람은 이들 카투사에게 조국아 갖는 의미를 되새겨주었다.



501정보여단 3정보대대 병장 박찬선

고성산 정상에 올라 기념사진을 찍은 3정보대대와 18의무사령부 지원대 카투사들

외국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른 문화의 관습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간의 부대생활 동안 한국 속의 외국인 미군부대 안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지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요일에 하는 정훈 교육 시간이 우리 카투사들에게는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처지의 동료들을 만나고, 같은 화제로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번 정훈 교육은 이색적으로 보광산 등산과 안성 3.1 운동 기념관 관람이 계획되어 한층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예상과는 달리 등산 코스는 예상외로 가팔랐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빨리 등반해야 했기 때문에 체력적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대에서 하는 PT보다 힘들었고, 논산훈련소의 야간 행군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어려운 만큼 정상에 올라서 느끼는 기분도 좋았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동행한 몇몇 미군들도 새로운 PT(?)를 체험하고 신선한 기분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사진을 몇 장 찍고 산을 내려와서는 산 앞에 위치한 안성 3.1 운동 기념관을 관람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볼 때는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 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전시관을 보다가 안성에서 독립운동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어났으며, 일본 관청을 점령하고 주거지에서 일본인을 내몰 정도로 규모가 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칸에는 독립군을 수감하였던 감옥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서는 피곤했는지 단잠을 잤습니다. 동료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어서 좋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정훈 시간에 지원대장님과 카투사 약 40명 정도가 등산길에 올랐습니다. 부대를 벗어나서 오랜만에 오른 산으로 가는 과정은 힘들었고, 땀도 줄줄 흘렸지만, 도착하고 나서의 느낌은 잊고 있었던 성취감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등산로였는데, 경사가 좀 가파르고, 등산 속도가 너무 빨랐기에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상에서 마셨던 시원한 이온 음료도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었습니다. 등산하는 동안 타 중대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안면도 익힐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와 간 곳은 3.1 운동과 관련해서 세워놓은 박물관이었습니다. 약 20분 동안 역사적인 브리핑을 듣고 실제로 박물관을 구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물관 관람은 이제까지 잊고 있었던 선열들의 값진 희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분들의 조국사랑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자 아찔했고, 우리 역시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고장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그저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동안 가파른 길, 평탄한 길, 내리막 길, 돌이 많은 길, 여러 가지 길을 걸으면서 앞으로 해나갈 군생활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수월하겠고 때론 힘들고 낙담할 때로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 정상, 즉 제대하는 날이 오면 그 과정들을 돌이켜보면서 웃거나 울게 될 거라 상상해보았습니다. 즐거운, 그리고 유익한 등산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산행을 가는 날 아침은 다소 더웠지만 날씨는 매우 맑았습니다. 이번의 등산을 떠올리며 약간의 기대감에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등산뿐만 아니라 3.1 운동 기념관 관람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훨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는 여기저기 이야기꽃이 피다가 이내 곧 조용해졌습니다. 아마도 다들 등산을 위한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 잠을 청했던 모양입니다.

이날 등산을 하면서 사람들이 왜 등산을 좋아하는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가파른 산의 정상에 오른다는 것이 우리 인생과 흡사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산을 타 정상에 다다르자 그 성취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정상에 오른 모든 카투사들의 얼굴에서도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추어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지원대장님의 말씀과 함께 휴식을 취하였고 잠시 후 모든 병사들은 길을 재촉했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정상에 도달하였고 모두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상쾌함을 만끽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산 후 들른 3.1 운동 기념관에서는 잘 정돈된 주위 모습과 함께 그 동안 잘 알지 못했던 안성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독립을 위해 우리 민족이 일치 단결하여 어떻게 투쟁하였는지 동행한 미군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좋은 공기 마시며 등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곳 소개해 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지원대장님께 감사드리고 정상까지 힘들게 음료수 들고 올라온 3 정보대대 카투사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8의무사령부 377의무중대
상병 남상백

18의무사령부 377의무중대
이병 장영수

18의무사령부 618치과중대
일병 남민우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Talk N' Talk



제 17 장

* 간단하게 식사나 하자.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는 (날씨가 더운 관계로 땀으로 빠져나간 칼로리 보충을 위해) 약 오전 10:30분 정도와 오후 3:00 경에 간단한 식사를 합니다. 물론 식사 사이에 간식이 끌리는 건 비록 남부 사람들 뿐만은 아니겠죠? 이런 경우에 "Let's grab a bite." 이라고 합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Let's have a snack." 이라고 할 수 있지요.

Topic : "간단하게 식사나 하자"
Let's grab a bite.
주제연구) 동사 grab 은 '~를 잡다' 입니다. 그리고 bite 는 '한입 깨무는 것' 이죠. 그러니 grab a bite 란 말 그대로 '한 입 먹자.' 또는 '간단히 뭔가를 먹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Dialog)
A: I am hungry.
B: Same here.
A: Let's grab a bite before we go.
B: That's a wonderful idea.
번역)
A: 나 배고파.
B: 나도 그래.
A: 우리 가기 전에 간단히 뭐 좀 먹자.
B: 그거 좋은 생각이다.

* 점심 식사하면서 토론 합시다.
미국인들은 유난히 식사를 하면서 business 하기를 좋아하는 국민들이죠. 그러다 보니 조찬 모임 breakfast meeting 이니 dinner meeting 이라는 표현이 발달했지요.

Topic : "점심 식사하면서 토론 합시다"
Let's discuss it over lunch.
주제연구)
over lunch 라는 표현은 참 재미있어요. 잘 보시면 lunch(점심식사)를 두고 그 위로 대화 (discuss)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커피나 한잔 하면서 대화 합시다"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땐 Let's talk over coffee. 라고 하면 됩니다.

Dialog)
A: What time is it?
B: It's 11:30.
A: Let's finish discussing it over lunch then.
B: Do you know a nice place?

번역)
A: 몇 시인가요?
B: 11시 30분 입니다.
A: 그럼 점심 식사하면서 토론을 마치지요.
B: 괜찮은 식당 아세요?

* 오늘 밤 외식할까?
미국인들은 '외식'을 자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값이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생겨나지요.

Topic : "오늘 밤 외식할까?"
Shall we eat out tonight?
주제연구)
'외식'한다는 건 말그대로 '밖에서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풀어보면 eat out 이 되겠죠?

Dialog)
Husband : Any plans tonight?
Wife : Not really.
Husband : Shall we eat out tonight?
Wife : Okay, I know a nice seafood restaurant near here.

번역)
남편 : 오늘 밤에 할 있어?
부인 : 별로요.
남편 : 그럼 저녁 외식할까?
부인 : 좋아요. 이곳 근처에 해산물 요리 잘하는 식당이 한 곳 있어요.
(덧붙여)
미국인들에게 '외식'이 잦은 이유는 다름 아닌 '맛벌이 부부 double income couple'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 외식하는 빈도가 잦아집니다.

* 오늘 내가 한 톱 쓸게.
연이어 '식사나 술을 마시고 자신이 계산 한다'는 표현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간에 자주 쓰는 표현이니 꼭 익혀주세요.
Topic : "오늘 내가 한 톱 쓸게"
It's my treat.
treat 에는 여러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They treated me as one of the family.' "그들은 나를 가족의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다." 의 문장에서 보듯이 "누구누구를 ~로 취급하다" 도 있고 오늘 주제처럼 "~를 대접하다" 는 뜻도 있습니다.

A: Let's go out for lunch, it's my treat.

B: What's up? Is it your birthday or something?

A: Actually, I won some money in a lottery last weekend.

B: Wow! How much did you win?
번역)

A: 점심 먹으러 가자. 내가 한 톱 쓸게.

B: 웬일이야? 오늘 자네 생일이라도 되는 거야?

A: 사실 말이지, 지난주에 복권을 사서 돈을 좀 탔거든.

B: 야 대단한데, 얼마 당첨됐는데?

* 와인 한잔을 무료로 드립니다.
"우리 식당에선 (식사를 하시면) 와인 한잔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국 식당에 가보면 광고성으로 써 있는 표현이 Wine is on the house.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house 는 '집이 아니라 '식당'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만 한 잔의 wine 을 준다는 겁니다.

Topic : "우리 식당에선 (식사를 하시면) 와인 한잔을 무료로 드립니다."

A glass of wine on the house.
주제연구) 위의 표현에 나온 house 는 '식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대표하는 salad 를 종종 house salad 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 식당의 대표 steak도 house steak라고 하면 되지요.

Dialog)
A: Honey, what does "on the house" mean here in the menu?

B: It means if we order steak we can enjoy a complimentary glass of wine.

A: That's great. Let me have red wine then.

B: Good choice.
번역)

A:여보, 여기 메뉴에 써있는 "on the house"가 무슨 뜻인가요?

B: 스테이크를 주문하면, 무료로 wine 한 잔을 제공한다는 거야.

A: 훌륭하군요. 그럼, 저는 red wine 으로 마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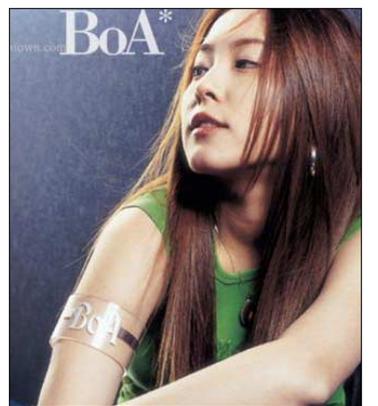
B: 좋은 생각이야.



터미네이터

감독: 조나단 모스토우
주연: 아놀드 슈왈츠네거

10여 년 전 미래로부터 파견된 강력한 T-1000의 살해 위협에서 벗어난 미래의 인류저항군 지도자 존 코너는 은둔하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은둔도 오래가지 않아 그를 살해하기 위해 스카이 넷은 최고의 암살기계 T-X를 개발하여 과거로 파견한다. 존 코너가 살아남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인간 측 전투 병기 구형 터미네이터가 돌아올 것인가?



보아

아틀란티스 소녀

2. 소주 한 잔 / 임창정
3. The Best / 유진
4. 난... / 옥주현
5. 비상 / 코요테
6. 바보처럼 / 김민종
7. 악으로 / 김진표
8. 그땐 미쳐 알지 못했지 / 이적
9. Try to remember / 성시경
10. 제비 / 김건모
11. Loveholic / LOVEHOLIC
12. Break Away / Big Mama
13. 한번 단 한번 / SEVEN

달콤함을 속삭이는 네 요정들 슈가



카투사 신문 장승모

이아유미
생년월일: 1984년 8월 25일
신장: 166cm 몸무게: 48kg
학교: 한국외국인학교 11학년

정음: 제 이름은 황정음이고 팀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198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태어났습니다!

혜승: 안녕하세요, 혜승입니다. 현재 일신여자 상업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팀에서는 랩과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 그룹 이름 'Sugar'에 대해

정음: 저희는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2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 동안 기획사 사장님이 저희 팀의 이름을 무엇으로 정할까 하다가 'Woman Four'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설탕의 이미지가 떠오르셨나봐요. 설탕이 달콤하고 하얗고 순수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설탕같이 달콤한 노래로 기분

가수 슈가가 돌아왔다. 슈가는 한동안의 공백을 깨고, 더욱 성숙해진 음악으로 가득 채워진 2집 앨범을 들고 우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컴백 활동을 하느라 분주한 슈가와 연락이 닿은 기자는, 6월 10일 모 음악 프로그램 녹화방송에 출연하는 이들을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이들을 인터뷰하면서 4명의 멤버들이 각각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러한 각각의 색깔들이 이들간에 너무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들에게서 기분 좋은 '달콤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이 밖에도 순수, 명량, 매력 등의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올 여름 TV 브라운관은 슈가의 달콤하고 향기로운 노래로 가득할 듯하다. 이제 가요계에서 이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자기소개

수진: 안녕하세요, 슈가의 막내 수진입니다. 현재 상명사대 부속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팀에서는 보컬과 랩을 맡고 있습니다.

아유미: 안녕하세요, 슈가의 메인 보컬 아유미입니다. K.F.S.(Korean Foreign School)에 다니고 있어요.

박수진
생년월일: 1985년 11월 27일
신장: 166cm 몸무게: 45kg
학교: 상명대부속고 2학년



카투사 신문 장승모

좋게 해주라는 의미로 팀의 이름이 '슈가'가 되었어요.

-솔로가 아닌 그룹이라서 좋은 점
아유미: 많아요! (웃음)

수진: 외롭지도 않고 밤마다 수학여행을 온 기분이에요. 저희가 3년째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명으로 이루어져 한 사람이 모자라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서로에 대해 모르는 점이 거의 없어서 친자매 같아요.

아유미: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건너와 한국에는 친구가 없는데 멤버들이 저한테 잘해주어서 외롭지도 않고 좋아요.

-군인이 가장 멋있어 보일 때

정음: 군인은 군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정말 멋있어요! 나라를 지켜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웃음)

수진: 군생활이라는게 정말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잘 견디시고 많은 어려움을

다 극복하시고 나오시는 군인분들 너무 멋있어요. 존경스럽기도 하고 훌륭해 보여요.

-군대 가는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수진: 일단 남자라면 군대는 꼭 갔다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멋있기도 하고 남자에게는 하나의 의무잖아요. 군인분들이 자랑스럽고요, 군생활 무사히 마치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유미: 군 입대하기 전에 마음껏 노시고요, 가서는 몸조심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음: 정말 남자다운 남자, 사나이가 되어 돌아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희 오빠가 군대를 다녀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더라고요. 훨씬 남자답고 든든해졌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남



카투사 신문 장승모

황정음
생년월일: 1985년 1월 25일
신장: 167cm 몸무게: 48kg
학교: 상명사대부속여고 3학년

러면 저희 멤버들이 싸인해서 보내드릴게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

수진: 이번에는 여러분께 더욱더 음악적으로 다가갈 계획이에요. 2집이니 만큼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혜승: 2집에는 라이브 활동을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2집을 준비하면서 정말 노래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더욱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카투사에게 한마디

수진: 카투사분들하면 까만 가방이 떠올라요. 항상 까만 가방을 메고 다니시더라고요. (웃음) 항상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유미: 저희를 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몸조심하시고 멋진 군인이 되세요!

정음: '슈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군생활 무사히 마치세요. 파이팅!

혜승: 건강이 최고니까 항상 몸조심하시고, 부대에서도 '슈가'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상병 장승모

자라면 군대는 꼭 다녀와야 한다고 봐요.

혜승: 군대가서 보기 힘든 그리운 사람들을 입대하기 전에 마음껏 만나고 가라고 말할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팬레터

수진: 군인분들이 팬레터를 많이 보내주세요. 내용들을 보면 군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털어놓으세요. 그런 편지들을 보면 정말 저희 팀 멤버들이 작은 힘이나마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은 싸인도 하고 답장도 보내드렸는데 제 편지 잘 받았다고, 많은 힘이 되었다고 편지를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그 분한테도 힘이 되고 체계도 힘이 되었던 기억이에요.

정음: 군대에서 많이 힘드신 분들어요, 저희 슈가한테 편지 보내주세요. 그

목혜승
생년월일: 1985년 10월 4일
신장: 165cm 몸무게: 46kg
학교: 일신여자상업고 2학년



카투사 신문 장승모